

민주 전남도지사 박준영 단독후보 확정 배경과 전망



민주당 전남도지사 후보로 확정된 박준영 예비후보(가운데)가 12일 목포시 상동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민주당 전남 기초단체장·광역의원 예비후보들과 6월 지방선거 승리를 다짐하고 있다. <박준영 예비후보 선거사무실 제공>

경선잡음 지속땐 수도권 선거전략 차질

“절차의 정당성도 중요...등록 더 연기 못해” 차기 당권 노리는 주류층 안배 결과 시각도

민주당이 박준영 현 전남지사를 6·2 지방선거 전남지사 후보로 확정된 것은 경선 무산에 대한 내부 반발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경선 일정을 지체할 경우 수도권 지방선거 전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기인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12일 오후 박준영 현 지사를 광역단체장 후보자로 최종 결정할 배경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가. 언제까지 연기할 수는 없다”며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내부 고민이 있었지만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면 안 된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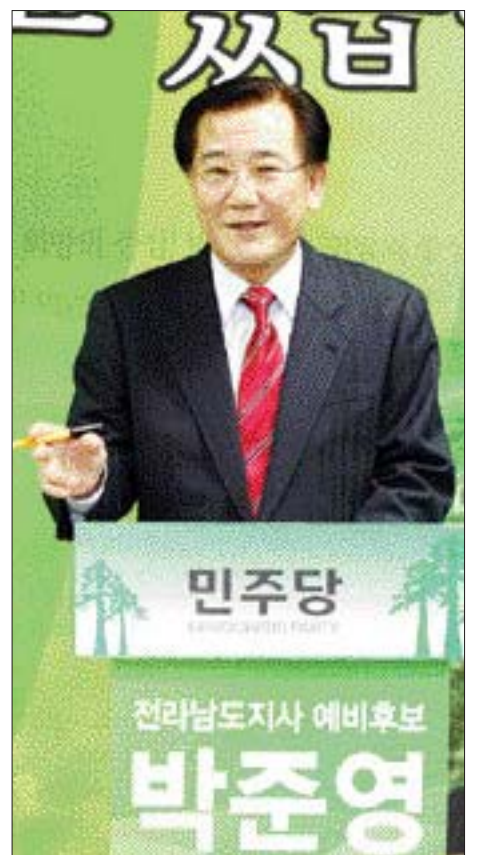
설명했다. 한 차례 등록시한을 연장했는데 또다시 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심각한 절차적 오류라는 것이다. 그는 또 “경선이 무산돼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등록시한) 날짜를 또 미뤄도 등록을 하지 않을 것이라 판단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같은 설명은 표면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광주시장후보 경선 문제가 시끄러운 마당에 전남지사후보 경선까지 잡음이 생기면서 중앙당이 장기간 끌려다

니면 수도권 전략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는 것이 일반적 해석이다. 특히,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1심 무죄 판결로 수도권 선거 분위가 좋아지는 상황에서 7~8월 전당대회를 노리는 주류층의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박준영 지사를 경선 없이 전남지사 후보로 확정하는 것에 대해 “경선 잡음”을 우려하는 지도부의 정치력 및 지도력 부족을 문제 삼고 나올 것이 확실시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묘하게 경선이 무산된 지역 모두 주류와 비주류 후보가 대결했으나 주류층 후보에 유리한 경선물로 확정되면서 갈등이 촉발됐다”며 “전남지사 후보 경선 등의 무산이 차질 주류-비주류 간 갈등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도민 성원·당원 지지에 감사 전남 인구 200만 시대 열 것”

■ 박준영 단독후보 소감

박준영 민주당 전남지사 예비후보는 12일 중앙당의 단독후보 결정에 대해 “민주당의 당헌당규와 경선규칙에 따른 당연한 결정”이라며 후보 수락 의지를 밝혔다. 박 후보는 이날 오후 목포시 상동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사진)을 갖고 “민주당 지사 후보로 최종선택된 것은 지난 1기 도정에 대한 도민의 평가와 성원에 따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동안 민주당을 살리라고 무한한 격려와 관심을 보내준 당원들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 후보로 최종 확정된 것”이라며 “당원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민주당이 2012년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이번 선거에서 호남에서 뿐만아니라 수도권에서 승리해야 한다”며 “깨끗한 선거를 통해 압승으로 당에 보답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그동안 도지사 책임시절 가장 낙후된 전남의 운명을 바꾸고자 도민들에게 호소하며 기업유치와 후손들을 위해 자신의 노력을 다해왔다”면서 “앞으로도 이 같은 노력을 배가해 인구 200만 시대를 반드시 열도록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경선에 불참한 주승용 국회의원과 이석형 예비후보에 대해 “등록기간을 하루 연장하는 데 동의해주고, 몇 가지 까다로운 조건도 양보했는데도 그분들이 등록하지 않은 것은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당에서 가뭄이라도 하고 세부규칙은



실무협상에서 논의하고자 했는데도 등록을 하지 않은 것은 본인들의 판단이 있었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박 후보는 또 단독후보 결정으로 민주당 예비후보로서 활동은 더 이상 불필요하다는 일부 의견에 따라 지사직 복귀도 검토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80년 신군부 언론계 숙정때 해직된 기자 출신 2004년 보선, 2006년 선거 이어 또 단독후보

■ 박준영은 누구

박준영 민주당 전남도지사 후보는 2004년 17대 총선에서 민주당 선대본부장을 맡았다가 그해 박태영 전남지사의 자살로 6·5보선에 출마, 열린우리당 후보를 물러치고 전남지사에 당선됐다. 당시 후보 난을 겪던 민주당의 전략 공천으로 전남지사 후보로 나섰던 박 후보는 초창기 열린우리당 후보에 비해 지지율이 4분의 1 수준에도 못미쳤지만, 이를 극복하고 승리를 거둬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도 했다. 이어 2006년에는 박준현 국회의원과 경선 구도가 펼쳐졌지만, 박 의원이 서울시장 후보로 방향을 선회하면서 결국 단독후보로 결정돼 비교적 수월하게 재선에 성공했다. 3선 도전도 주승용 국회의원과 이석형 전 합평군수의 협공에 경선 초반에는 순탄치 않을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주 의원과 이 전 군수가 결국 경선에 불참함으로써 이번에도 단독으로 민주당 후보로 결정돼 수월하게 ‘3선 고지’를 눈앞에 두게 됐다. 박 후보는 1980년 7월 신군부의 ‘언론계 숙정’으로 해직된 중앙일보 기자출신으로,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국내언론 비서관(1급)으로 청와대에 입성했다. 1999년 5·24개각때 공보수석으로 발탁돼 2년 4개월여간 김대중 전 대통령을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하면서 대통령의 ‘입’ 역할을 했다. 박 후보는 또 모교인 성균관대에서 언론학 박사학위를 딸 정도로 학구적인 스타일이며, 공보수석 재직시절인 2001년에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되기도 했다. 영암 출신으로, 부인 최수복(56)씨와 사이에 3녀를 두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주승용·이석형 강력 반발...무소속 출마 할까 향후 행보 주목

민주당이 12일 전남지사 후보 경선 없이 단독 후보로 등록한 박준영 예비후보를 최종 확정하자 주승용 의원과 이석형 전 합평군수 등 전남지사 예비후보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서 후유증이 예상된다. 특히 이들이 중앙당에 재신 청구 등을 하는 등 즉각 대응에 나설 예정이지만, 중앙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이들의 향후 행보가 어디로 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당내 경선 후보 등록을 하지 못해 사실상 경선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소속 출마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역정가에서는 주 의원의 경우 현역 국회의원으로

따라 탈당 후 무소속 출마라는 ‘악수’를 두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반면 이 전 군수는 무소속으로 합평군수 ‘3선’을 한 경력이 있는데다 차기 국회의원 선거까지 2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무소속 출마를 감행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두 후보 측은 아직까지 ‘중앙당 재신 신청’과 경선 재개에 필요한 절차를 검토하고 있을 뿐 향후 거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주승용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민주당의 전남지사 단독 후보 결정을 강하게 비난했다.

주 의원은 “전남지사 후보를 단독 후보로 추천하기로 한 당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은 전남도민과 당원을 철저히 무시하고 민주주의 절차를 짓밟는 처사”라고 반발했다. 그는 “강한 전남을 위한 꿈을 이루고자 수년을 준비해온 후보에게 출전의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고 봉쇄한 당의 날벼락 같은 결정에 참담한 심정을 도저히 가늠 길이 없다”면서 “이번 결정은 결과적으로 세 후보가 아니라 한 후보만을 위한 편파적 경선 방식의 결정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당의 이번 결정에 대해 추후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석형 민주당 전남지사 예비후보도 이

날 “앞으로 재임을 비롯한 경선 재개에 필요한 절차와 법적 문제를 검토한 뒤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 후보는 “당이 최고위원 회의를 열고 박 후보를 전남지사 후보로 결정한 것은 전남도민과 당원의 자존심을 짓밟는 정치적 악수”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경선 후보 등록 유보는 박 후보가 비공개 문건을 통해 전남도당 상무위 의결 사항인 기초단체장 경선 일정을 초법적으로 변경하면서 촉발됐다”면서 “박 후보의 월권 행위에 대한 책임 규명이 우선이었으나 당은 이를 외면했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Large advertisement for 'Seegi Bocheonggi' (Seegi's Bocheonggi) featuring a cityscape and promotional text. The text includes '세기보청기' and '세기의 무대는 세계입니다'. At the bottom, there is contact information for '세기보청기' and '세기보청기'.